

세계 해전사 기적 ... 416년 전 '명량대첩 신화' 재현된다

'명량대첩 축제' 오늘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서 열려 수군재건 랠리·강강술래·명량 11품 마당놀이 다채

“2013 명량대첩축제”가 27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이 축제는 세계 해전사(海戰史)에 길이 남을 416년 전 명량대첩 신화를 재현하는 것으로 서막은 수군재건 랠리가 연다.

전남자전거연합회 회원 250여명은 27일 구례군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1박 2일동안 7개 시군을 순회하며 해남 우수영까지 800리 길을 달린다.

수군재건 랠리는 명량대첩 축제 개막에 앞서 이순신 장군이 한성에 서부터 경남 함천까지의 백의종군 여정을 마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돼 전라 백성들의 구국 열망을 결집하는 과정을 퍼포먼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진군의 기상! 울돌목의 함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당시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열린다.

축제의 백미인 해전 재현은 당시

기적같은 해전 승리를 재구성한 대형 야외 총체극으로 3000여명의 출연진이 한편의 서사 드라마를 연출한다.

민초(民草)들의 육상 전투장면 재현도 병행한다. 실제 관육선 두 척이 참여해 416년 전 승리의 감동을 관광객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명량대첩의 원혼을 기리는 ‘평화의 진혼무-위령 씻김굿’과 추모의 만장이 2km에 달하는 만가행렬은 500명이 넘는 진도군민이 진도대교를 가득 메우는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들도 만장기를 들고 참여할 수 있다.

수군재건 랠리에 도내 22개 전 시군이 참여하며 명량 11품 마당놀이, 풍물놀이, 해상풍물 뱃놀이, 한마음 즐나리기 등에는 해남과 진도지역 주민이 대거 함께한다.

초요기를 올려라, 수문장 교대식, 전통 강강술래 경연, 해군 군악대 및 홍보단 공연, 바다쇼 퍼레이드, 이순신 ‘판례라’ 공연, 강강술래 국민생활

■ 2013명량대첩축제 행사 일정

	9월 27일(금)	9월 28일(토)	9월 29일(일)
진품	초요기를 올려라	명량해전 재현 만가행렬 평화길놀이	명량해전 재현 만가행렬 평화길놀이
명품	소다사마리 큰잔치 판례라 '이순신' 공연 해상 퍼레이드	약무총남 입성식 명량11품 마당놀이 울돌목 바다쇼 전통 강강술래 경연 강강술래 국민생활댄스 공연 평화의 현화 및 진혼무	약무총남 입성식 울돌목바다쇼 명량 11품 마당놀이 전통 강강술래 공연 판례라 '이순신' 공연
체험	울돌목 물살 체험 총무공 활쏘기 체험 녹진 메밀꽃밭 체험 진도대교 이색 자전거 체험 조선시대 저잣거리 체험 총무공 연 날리기 체험 명량해전 그림그리기 체험 총무공 어록쓰기 체험 질공예-천연비누 만들기 총무공 소망·추억 새기기	울돌목 물살 체험 총무공 활쏘기 체험 녹진 메밀꽃밭 체험 진도대교 이색 자전거 체험 조선시대 저잣거리 체험 총무공 말타기 체험 총무공 연 날리기 체험 명량해전 그림그리기 체험 총무공 어록쓰기 체험 질공예-천연비누 만들기 총무공 소망·추억 새기기	울돌목 물살 체험 총무공 활쏘기 체험 녹진 메밀꽃밭 체험 진도대교 이색 자전거 체험 조선시대 저잣거리 체험 총무공 말타기 체험 총무공 연 날리기 체험 명량해전 그림그리기 체험 총무공 어록쓰기 체험 질공예-천연비누 만들기 총무공 소망·추억 새기기

댄스 경연 등도 관광객을 맞이하길 도 열린다.

외국인 대상 명량 1박 2일 프로그램에는 주한 미군과 가족,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명이 이미 신청했다.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총무공의 일과 호국 정신이 깃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라 우수영 들소리' 45년만에 복원

내일 명량대첩 축제 우수영 수변무대에서 공개

“전라 우수영 들소리”가 45년 만에 복원됐다.

26일 전라 우수영 들소리 보존회(회장 박귀만)에 따르면 지난 1968년 전 한양대 권오성 교수(현 동북아음악연구소 이사장)가 우수영에서 녹음해 보관한 우수영 남자 들소리 음원을 목포대 도서관에서 찾아내 복원했다.

이 들소리는 1960년대까지 우수영 남자들이 힘든 농노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농요로 멋진 생활상을 담고 있다.

못자리에서 손으로 모를 뜨면서

부르는 면대소리, 모내기(상사소리), 김매기(절로소리), 방아타령, 도리개질 소리, 머슴 중에서 일을 제일 잘한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농악에 맞추어 춤추면서 부르는 길꼬내기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농요를 연구하는 목포대 이경업 교수는 “우수영 남자 들소리 특징은 여자들의 것인 진도, 신안 들노래와 다른 형태이고 훨씬 오래된 고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들노래는 서남해안에 전승되는 남자 농요로 희소성과 판소리 목을 사용하고 사당패소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변남주 교수는 “지금까지 해남을 비롯해 진도, 신안 등 도서 연안 지역에서는 남자들의 농요 전승이 이뤄지지 않고 단절된 가운데 이번 복원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해남 우수영에는 여자들의 것으로 강강술래(국가지정무형문화재 8호), 부녀농요(전남무형문화재 20호)가 있다.

남자들의 것은 대보름 집단놀이인 용잡이놀이로 2년 전 복원됐다.

이번에 복원된 들소리 발표회는 명량대첩축제 행사장인 우수영관광지 수변무대에서 28일 공개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어머니 한글학교’ 운동회

강진군은 26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운동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는 강진군이 2009년부터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위해 마을을 찾아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진군 제공)

전남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내달부터 9.56% 인상

순천·여수·광양 등 일부 지자체는 11월부터

다음달 1일부터 전남지역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평균 9.56% 오른다.

지난 2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3월 택시요금이 이미 오른 만큼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 요금은 전남도가 지난 8월 도(道)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인상안

을 의결한 이후 시군에서 고시 등을 거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순천을 비롯해 여수, 광양 등 동부지역 일부 지자체는 11월부터 오른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시내버스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이 오른다.

좌석버스는 통합(목포)과 비통합

시(여수, 순천, 나주, 광양)가 각 1500원과 1650원에서 1700원, 1800원으로, 고희와 보성 등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0년 7월 평균 10% 인상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전남지역 시내버스는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에서 12개 업체 682대가, 농어촌 버스는 무안, 고희 등 38개 업체 555대 등 1237대가 운행 중

이다.

택시요금은 지난 3월 평균 18.5% 인상됐다. 이에 앞서 시외버스(일반·직행형)와 고속버스 운임 요율은 각각 7.7%, 4.3%가 올랐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 개최 이유로 적용시점을 한 달간 늦췄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

임금 13만원 인상 등 합의

여수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돼 운행중단 위기를 넘겼다.

여수시는 동양교통, 여수여객, 오동운수 등 시내버스 3사 노사 협상이 26일 오전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시내버스 운전원 임금 호봉별 월 13만원 인상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급여는 월 11만원 인상금액으로 소급 적용 ▲상여금 현행 유지에 합의했다.

노조는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노조는 지난 25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나 돌입 직전 파업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합의, 운행중단 사태는 피했다.

노조는 총 173대의 시내버스를 격일제로 운행하는데 운전원 346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6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신안 천일염 원염 650t 첫 美 수출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가공되지 않은 원염(原鹽) 상태로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솔트에서 수출대행사 한남체인과 ㈜아이신안을 통해 신안천일염 650t을 미국에 수출한다.

신안 입자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목포신외항에서 선적돼 부산항으로 옮겨져 다음 달께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되는 신안천일염은 한남체인에서 1차분 20kg짜리 1만

2000포대 240t이다. 한남체인은 이번 물량을 포함해 모두 600t을 수출할 예정이다.

또 ㈜아이신안도 20kg과 10kg 박스 1100박스 총 50t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신안천일염은 미국 수출을 위해 지난해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했다.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가공되지 않은 원염(原鹽)상태로 미국에 수출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안=이상민기자 sslee@

전남도, 고추 가격 안정자금 45억 긴급 지원

김치·식품가공업체 대상

전남도는 26일 올해 고추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도내 김치 및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 지원 규모는 농업종합자금(연리 1%) 45억 원으로 도내 김치 및 식품가공업체에 지원한다. 또한 신속

한 융자 실행을 위해 농협중앙회,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고추가격 하락에 따라 김치 및 식품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추 구매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영랑농협 고추가투가공사업소, 순천 농협 남도김치 가공공장 등 총 23개 업체에서 253t을 추가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 업체에 긴급 자금을 지원, 고

추를 구입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건조추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4일 정부 비축 수매를 조기에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에 1만 7000여t의 수매물량을 확정하고 23일부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조기 수매를 시작했으며 10월부터는 각 지역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수매를 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해남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

만섬~미항사~대흥사~옥천 탐동마을 52km

고산 윤선도,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이 교유했던 해남 땅끝 천년숲 옛길이 복원됐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송지면 땅끝 자연스러운 숲길을 조성했다. 옛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마을에는 장승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6곳에 설치한 스토리텔링형 안내판은 해남의 대표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땅끝길과 미항사 역사길, 다산·추

의 교류길 등 3가지 테마로 구분한 천년숲 옛길은 작은 오솔길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숲길을 조성했다. 옛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마을에는 장승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6곳에 설치한 스토리텔링형 안내판은 해남의 대표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구간 중에서도 땅끝 만섬~도

솔 코스는 달마산과 갈두산을 잇는 땅끝 기맥을 따라 걷는 곳으로 시아가 트여 아름답다. 주로 평지인 옛길은 3~4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미항사에서 오솔암 구간 중간에 앞반이 허물어져 위험한 150m는 그대로 방치해 육에 티가 되고 있다.

박철환 군수는 “땅끝마을에서 시작해 바다 향과 바람이 이는 숲길을 걷다 보면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고산, 추사, 다산이 교류하던 옛길을 찾아 힐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한 등산객이 최근 복원된 해남 땅끝 천년숲 옛길 코스 가운데 돌길을 걷고 있다. (해남군 제공)

보성 태백산맥문화관 관람객 40만명 돌파

보성군은 태백산맥문화관의 누적 관람객수가 4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21일 별교을 제석산 자락에 문을 연 태백산맥문화관은 소설 애독자들을 비롯해 대학 동아리, 중·고교 수학여행단, 가족단위 관광객 등의 문화기행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문화관 주변 소설속 주무대지인 현부자집, 김범우의 집, 홍교다리, 소화다리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도보여행도 즐길 수 있다. 또 별교우체국~별교을사무소 구간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보성여관에서 별교의 옛 모습과 휴식을 즐기며 소설 속 경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순천청년연대 주관으로 현부자집과 중도방죽, 김범우집 등 소설 속 주요 현장에서 소설을 재연하는 연극 공연과 해설이 진행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